

의안 번호	제 278 호
의결년월일	1996. 3. 28 (제 15 회)

의 결
사 항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구미설립건의문

제 출 자	사회산업위원장
제출년월일	1996. 3. 28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건의문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1996. 3. 28

제 출 자 : 사회산업위원장

1. 의결주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건의문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경상북도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및 판매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금과 기술, 인력, 정보등을 지원하는 기관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부지 2,000평 전평 5,000평 투자비 250억원 2,000년 완공예정으로 설립키로 함에 지리적, 경제적, 국가산업 발전적등 제반여건상 설립 입지 여건이 최적지의 구미임을 도내기관에 건의코자 함.

3. 주요골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건의

4. 건의안 내용

붙임과 같음

5. 건의처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건의문

<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 >

- 중소기업에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제공과 행정지원체계를 적극도모하고
- 지역내 중소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와 육성발전을 가져 오므로서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의 촉진을 이루어
- 국제화·개방화·정보화·첨단화로써 산업의 국경없는 경쟁적 환경에 보다 능률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경쟁력있는 경북을 만드는것은 물론이고 국가산업 발전에 일조를 할 것임

1. 지역여건

0 지리적 환경

- 국내에서 가장 풍부한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낙동강이 市 중앙을 관류하며 (전국에서 용수생산단가 가장 저렴:목포시의 30%,전국의 64%)
- 경북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주요도시를 3시간내 연결할 수 있는 교통망이 완비

경부선 철도·경부고속국도 → 市 中央 관통
 중앙고속국도 → 10分거리 통과
 중부내륙고속국도 → '96년 실시 설계중
 구미 — 옥포 고속국도 → " "
 구미 — 포항 고속국도 → 예 정
 기타 경부국도 인접(15分 거리) 및 국도 33호선 市 관통

- 전국 중요 공업단지와 연계성

· 전 국 : 서울구로·인천·익산·청주·광주·여천·창원·울산·
 포항·대구등과 연결이 용이
 ※ 現 중부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이 구미에 소재
 (大田까지 관할)

· 도 내 : 김천·상주·문경·안동·의성·칠곡·군위 등에 산재
 되어 있는 논공단지와 연계가 용이

- 물류비용의 절감

·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과 정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영남권 복합화물
 터미널이 김천지역에 설치예정(사실상 구미와 극히 근거리)

- 경북의 중심지 (교통, 문화, 관광, 산업의 고용 인력 등)

- 중앙정부와 근접교류가 용이

0 사회적 환경

- 적정한 도시화까지 충분한 개발 가능지 보유
 - 산업화로 인한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말미암아 환경·교통·문화·사회 등 제반 도시문제가 야기되어 지방분산을 유도 하지만(대 도시) 구미는 31萬으로 50萬의 인구로 도시가 발전 할때까지는 어떤 문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인구가 50萬은 되어야 가장 활력있는 도시가 될 것임.
- 구미국가공단 530萬坪의 세계 최첨단 전자산업분야 460개사를 비롯, 인근 지역에 산재한 1,724개 업체를 집중 지원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전자산업단지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제4단지 194萬坪 추진중)
-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중소기업이 가동되고 있음
- 개발 가능한 구릉지의 조건등
 - 농업기반시설을 잠식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구릉지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으며, 공해가 전무한 전자산업단지로서 공업도시로 지속적으로 확장하여도 환경문제 등이 유발되지 않음.

2. 설립건의

구미는 첨단산업도시의 요건을 상당정도 구축하고 있으나 핵심산업기술과 연구개발환경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지리적·사회적 환경은 타 지역보다 월등 함으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하여 대외교류협력센터·산업기술정보센터등 기술연구개발을 위한 총체적 집합체인 구미테크노파크 및 멀티미디어 연구단지 등과 연계하여

세계적인 전자정보통신분야의 메카로 부각시켜 2002년 국제 전자·정보 통신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일조를 하므로써,

단순한 구미지역공단의 발전이 아니라 경북 전체의 운명과 위상을 바꾸고 미래 국가경제 발전을 가져오는 전략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구미지역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인근지역과 지역내 기업인을 비롯하여 31萬 시민과 구미시의회 의원 34명의 한결 같은 소망으로 건의드리오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의회 의장 이 수 근